

#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이필례 송슬기 공인석/김영숙 김영애 김종선/박영숙 김창길 김춘화 박은숙  
석형기/이희순 성미영 송부현/김영진 송형기/김현숙 신순덕 여운희 이상희 이한웅 /김순옥  
임만준/서영숙 장명원 장복순 조규영/윤혜란 지상건/이복현 최상걸/이미향 최순재

📍 **선교헌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이필례 송슬기 김영숙 김영애 박춘자 배세영 서재희 송다혜 송부현 여운희  
윤영준/박진숙 이항교 장명원 최순재 바울남전도회 새 를 한나여전도회

📍 **감사헌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례 송슬기 김경엽 김경자 김병을/이영숙 김춘화 김현규/서재희 박부웅 박춘자 석형기/이희순a  
손명화 양영옥 이미지 전순봉 채영엽 최기훈/경계숙 최선미 최정규 허봉선 황영옥 무 명 무 명

📍 **일천번재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경엽 김명숙 김민성 김준구 김혜란 박민서 박정숙 박준홍 백경자 양영옥 이강우  
이미자 이상미 이설아 이소은 이승애 이옥남 정옥순 주성락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김민혁 무 명  
박서광

📍 **월정헌금**

박춘자

## 주간 성경연구

29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로마서 1장 1절 ~ 7절		
월요일	로마서 1장 8절 ~ 17절	목요일	로마서 2장 1절 ~ 11절
화요일	로마서 1장 18절 ~ 25절	금요일	로마서 2장 12절 ~ 16절
수요일	로마서 1장 26절 ~ 32절	토요일	로마서 2장 17절 ~ 29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대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제호	
	전 도 사	이필례	
	교육전도사	송슬기	
찬양대	지 위 자	할 렐 루 아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온 . 에 덴 : 최원지 엔 젤 : 이난수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공희화 최유경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정예슬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수 리 남 : 안석철 이성옥 미 국 : 김다니엘 미 국 : 최옥희	이 집 트 : 김진숙 A X 국 : 김해철 A X 국 : 이분옥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맥 시 코 : 김홍기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20. 7. 12.

에베소서 5장 15-21절	시간을 구원하라	설교: 이진우 목사
----------------	----------	------------

본문 15-16절을 보면,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고 했습니다. 과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헬라어 “엑사고라조메노이 른 카이론.”인데 이를 직역하면 “때를 값을 치루고 사듯이 하라.”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어떤 회생을 하더라도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의 성장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며, 섬기는 봉사의 생활과 더 나아가 악한 세상에서 선한 일에 힘을 쓸 수 있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설교자들이 원어인 “엑사고라조메노이”를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라는 의미로 설교를 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끼라.”로 번역된 헬라어 “**엑사고라조메노이**”는 “규모 있게”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구원하다, 속량하다, 구하여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뜻을 따라 성도는 죽어가는 시간, 쓸모없이 버려지는 시간, 사람의 악을 더하는 시간에서 자기에 주어진 귀한 시간을 구원해 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지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 우리 삶 속의 쾌락의 시간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술은 사람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술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술 때문에 실수하는 것을 넘어서 음주 운전, 가정 폭력,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일상의 붕괴, 건강 문제까지 너무나 많은 악한 점이 있음을 봅니다. 술을 마시면 인생이 즐거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잃어 버리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술은 자신의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귀한 시간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허무한 일에 소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술이 힘겨운 인생살이로 지친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저 현실도피의 수단이 될 뿐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술로 인한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성령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울 것을 권면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능력은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게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 세상을 두려워하며 숨어있었지만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 후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구원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이 시대, 진정 말세말단의 시대, 때가 악한 바로 지금을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우리 삶 속에서 감정으로 허비 하는 시간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 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 진정한 찬양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즐거움을 위해, 어떤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때로는 슬픈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참으로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는 형편과 처지를 노래로 만들어 부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생각과 감정은 노래라는 그릇 속에 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래가 그저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으로 변화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담은 노래가 찬양이 된다면, 기쁨의 노래는 감사가 되고, 아픔과 눈물의 노래는 기도가 되며, 즐거움의 노래는 사경이 되고, 결국 모든 순간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찬양이요, 간증이 되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노래의 장점은 곡조와 시를 통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꼭 음이 있는 노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읊조리며 또는 지금의 현실에 대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 까지도 찬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노래를 찬양으로 바꾸라는 권고는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과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라는 명령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정으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곡조의 찬양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 성도가 함께 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그 순간순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 여호와의 구하며, 구원의 기쁨을 삶속에서 더욱 찬양하며 사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의 시간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20-21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수많은 관계로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거룩해지는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관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관계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원인이 평등함이 깨어지고, 타인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행동은 결국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섬기지 않으려는 것 또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도 관계를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섬기려 오셨고,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겨야 합니다. 높은 마음은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오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섬기셨듯이 우리도 서로 섬겨서 이기적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있는 공간이고, 행동이며, 감정이고 관계입니다. 그 시간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SINCE 1975

No. 46 - 29

2020. 07. 19.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가는 삶” [사도행전 12장 24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입문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b>담임목사</b> Senior Pastor	<b>이진우</b>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이지: www.sunghyeon.or.kr

